

국민의 獻血運動에 부쳐



(金箕洪)
대한血液管理協會長

현재 先進國의 年間 血液所要量은 혈액병으로 계산하여 그나라 人口의 4~6%정도의 수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4년 우리나라의 全血(whole blood)사용량은 28만병이었고 75년에는 30만병으로 集計되어있어 人口의 약1%에 해당되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人口 1백명당 한 사람이 혈액을 제공해야만 진료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수량은 先進諸國에 비하면 미약하나 앞으로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醫療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所要量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가난하여 혈액의 사용량이 적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못되지만 필요한 혈액의 대부분을 賣血에 의존하여 공급하고 있는 현실은 부끄러운 노릇이다. 가난한 탓으로 獻血을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4년도에 헌혈된 혈액은 5만5천병, 75년도에는 6만여병으로 사용량의 20%를 넘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전부 賣血이었다.

賣血을 하루빨리 지양하여 헌혈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는 肉身의 일부분을 사고팔고하는 梅毒의 反倫理性이 문제가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기회가 많아 藥주고 病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한 統計에 의하면 獻血 혈액을 輸血한 뒤에 발생한 血清肝炎은 1.2~1.4%에 불과하나 賣血에서는 8.5~9.0%에 이르고 있고 梅毒도 헌혈에서는 0~0.1%임에 비해 賣血에서는 3%란 高率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 日本서는 賣血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중 30%나 血



<이동헌혈차에 의한 헌혈광경>

清肝炎이 발생한 地域이 생겨서 크게 社會問題化된 일도 있었다. 결국 日本서 賣血追放을 위한 국민운동이 일어난 契機가 바로 수혈에 따른 肝炎傳染이라 하겠다. 肝炎은 그 자체가 쉽게 낫는 병이 아닌데다가 사망율이 높은 肝硬變症의 원인이 된다고 볼때에 누구나 깨끗한 혈액을 수혈받고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헌때 우리나라의 血清肝炎 바이러스(Virus), 保菌者는 5%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혈이 부진한 이유는 헌혈의 歷史가 日淺한 탓으로 아

직 혈액의 생리와 헌혈의 중요성에 관한 認識이 국민의 深層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혈액은 人體內에 순환하면서 필요한 酸素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老廢物을 운반하여 배설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人工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다. 피가 부족해서 危急한 환자에게는 오직 輸血만이 生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어떤 藥도 代用될 수 없다.

사람의 몸에는 대체로 체중의 8%가량의 혈액이 있으며 그의 主成分은 赤血球이다. 그런데 赤血球은 하루에 약 1백분의 1가량이 老衰하여 파괴되고 동시에 그만큼 數가 새로 骨髓에서 生成된다. 알기쉽게 말하면 체중이 65kg인 사람의 몸안에는 5000cc 정도의 혈액이 있으며 매일 혈액 50cc중에 있는 赤血球가 죽고 동시에 죽은 만큼 새로 탄생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죽어가고 태어난다. 말하자면 體內에는 항상 一定량의 혈액이 유지되고 있지만 어제의 피와 오늘의 피는 構成員이 다른 셈이다.

단약에 外傷이나 疾病으로 혈액의 損失이 있으면 骨髓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速度로 赤血球를 생산해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獻血者로부터 320cc를 採血하는데 10일전후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된 피가 活力에 찬 새로운 피로 교체되므로 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도 있다. 筋肉이나 關節은 쓰지 않으면 機能이 低下된다. 運動이란 자극을 加함으로써 제 구실을 하게 된다. 같은 이치

로 피를 뽑음으로서 骨髓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造血機能을 強化시킬 수 있다. 經度나 解脫으로 出血한다고 해서 女性이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처럼 적당한 量의 獻血은 결코 건강에 害롭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헌혈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輸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필요할때 깨끗한 피를 누가 줄 것인가 생각해보자. 내가 건강할 적에 누구를 위하여 피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위하여 피를 주겠는가. 이렇게 따지면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 서로 돕는 방법이 곧 獻血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啓蒙하는 것이 獻血事業의 가장 중요한 「잇슈」이며 또한 成功의 捷徑인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獻血에 대한 인식을 國民 모두에게 심는다는 것은 단시일내에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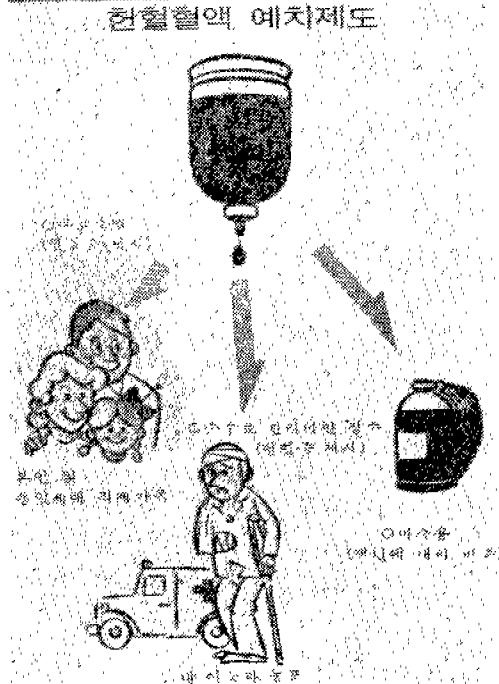
시기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킬 다른 方法을 모색해왔으며 先進外國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혈액의 預置制度를 금년 3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血液의 預置制度는 순수한 獻血——自身的 獻血에 대한 補償이나 權利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獻血——의 바로 前段階로서 獻血者의 權利와 利益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血液의 제공자에게는 獻血證書를 주고, 그가 또는 그의 직계가족이 필요시 언제든지 全國의 托 기관에서 다시 찾아 無料로 輸血받을

내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위해 피를 줄 것인가

▶ 서로 돕는 방법이 곧 獻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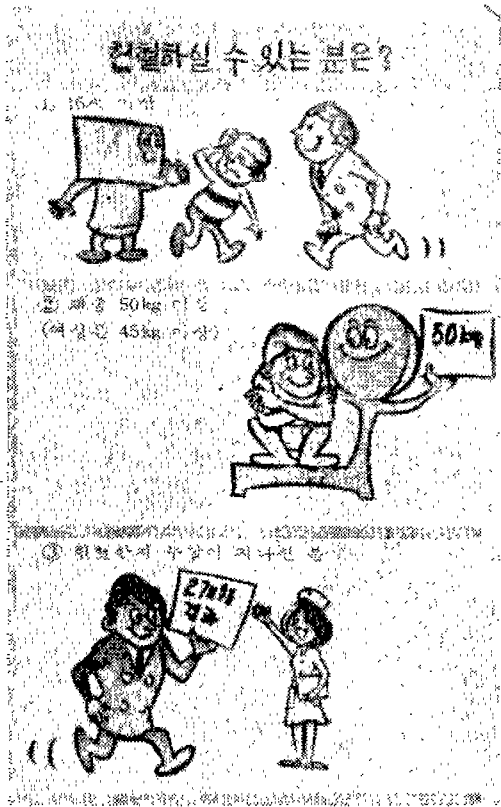
간헐적 헌혈은 이렇게 쓰여진바
헌혈혈액 예치제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 증서를 친구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希望할 때도 所定의 혜택을 주도록 配慮되어 있다. 마치 여유가 있을 때 은행에 預金을 하였다가 필요한 때 찾아쓰는 것처럼 健康할 때 獻血을 하였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는 찾아쓰자는 제도이다.

賣血 때문에 골치를 썩었던 이웃 日本도 이 제도를 채택한지 약7년만에 순수한 獻血제도로 전환할 수 있었던 예를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血液을 완전히 무료로 주고받고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행히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매스컴」의 협조가 점차 고조되고 있고 宗敎人과 一般社會人의 관심은 물론 대한看護協會, 藥品工業協會 등 전문 團體에서 協調에 자발적으로 나서주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한 대한 血液管理協會로서는 이 사업의 主導와 함께 有關團體들의 獻血운동을 적극 支援하고 誘導할 만반의 態勢를 갖추고 있다.



우리國民 모두가 평상시에 獻血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한다면 疾病이나 災難등 非常時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정신풍토를 기르지 못한다면 이 社會는 한없이 어둡게 될 것이며 종래에는 凋落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든으르든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生命이다.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길이다. 서로 나누어 쓸 줄 모르는 데에 人間의 悲劇이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피를 남에게 나누어주면 내가 필요할 때 또 누군가가 나누어 줄 것이다. 이러한 相扶相助의 정신을 國民에게 심어주는 것이 獻血제등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대한看護協會가 금년 제43회 定期總會를 계기로 전국組織을 통해 獻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들이 醫家 同道를 걸고있는 專門人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看護事業 그 자체가 人間愛의 表現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르는 人間의 悲劇을 일깨우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會員 한사람 한사람이 獻血者요, 獻血계몽要員이 된다면 그 사업성과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看護協會 會員들의 踴躍을 빌어마지 않는다.

「RN 교재」안내

현재 본회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습의 (R.N. Review Course) 교재 "Nursing Examination" Review Book Vol. 1, 2, 3을 안내합니다.

내용 : 내외과, 정신과,
산소아과간호학
가격 : 2,500원,
(우송신엔 200원첨부)